



양현종



임준섭

# ‘좌파’의 부활

## KIA 왼손 투수들 속속 돌아와 ... 마운드 활력

KIA 마운드의 좌완 라인이 구축된다. 좌완 기근에 시달렸던 KIA 타이거즈가 부상 복귀와 용병 영입으로 마운드 재편성에 들어간다.

심동섭의 복귀가 신호탄이다. 지난해 7월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마운드를 떠났던 심동섭이 재 활을 끝내고 30일 1년 여 만에 1군에 재합류했다. 퓨처스리그 4경기에 등판한 심동섭은 4.2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5볼넷 6탈삼진을 기록하면서 1군 풀업을 받았다.

심동섭의 합류는 불펜에서 고군분투했던 박경태의 안정세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선발로 뛰고 있는 임준섭을 제외하고 박경태는 KIA 마운드의 유일한 좌완. 지난 LG·NC와의 6연전에서 3차례 등판해 나흘로 70이닝을 책임졌다.

서재응이 일찍 무너졌던 27일에는 나성범에게 투런포를 허용하기 전까지 3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4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피칭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박경태는 "(심)동섭이가 들어오면서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한결 더 여유가 생길 것 같다. 부



**심동섭, 팔꿈치 재활 끝내고 복귀 박경태, 안정된 피칭으로 눈길 양현종, 부상 회복 복귀 가시화 앤서니 대체 용병도 좌완 물색 중**

상 없이 꾸준히 내 역할을 하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다.

지난 6월 28일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옆구리 부상을 당하면서 휴업에 들어갔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의 복귀도 가시화 되고 있다.

재활을 끝낸 양현종은 30일 롯데와의 퓨처스 리그 원정경기에서 첫 실전 피칭에 나섰다.

선발로 등판한 양현종은 3이닝 동안 2피안타 3

볼넷 3탈삼진 2실점(비자책)을 기록했다. 투수가 66개로 많았지만 첫 실전 피칭에서 148km의 직구를 던졌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최고 구속은 130km, 커브는 108km를 찍었다.

양현종은 "오랜만에 던지는 거라서 밸런스가 좋지 않았다. 컨트롤이 흔들리면서 투구수가 많았다. 부상 부위 치료에 집중하느라 러닝이 부족했다"며 "첫 실전피칭이라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통증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잘 준비해서 1군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좌완 라인의 마침표는 새 용병이 찍혀 된다. 마무리로 뛰었던 앤서니를 방출한 KIA는 좌완 투수를 대상으로 대체 용병을 물색해왔다. 최종 후보는 결정된 상태. 후반기 순위 싸움에 급한 만큼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 명의 좌완이 마운드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KIA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마운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선동열 감독은 "양현종은 한 차례 더 2군에서 등판을 시킬 계획이다. 심동섭도 두 차례 정도 던지는 것을 보고 보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심동섭



박경태

## 선동열, 류중일 감독 손잡고 "1위 팀 氣 좀 빼앗자"

### 덕아웃 말말말

▲1위 팀 감독 기(氣) 좀 뺏어야겠다=선동열 감독, 인사차 KIA 덕아웃에 들린 삼성 류중일 감독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다 가져가고 없어=선동열 감독, 야구박물관 기념품 점수 현수막을 본 류중일이 기증하길 것 없느냐고 묻자, 행사 때마다 기증하다 보니 해대 시절 유니폼도 없더라면서.

▲9번이예요=삼성 최형우, 광주에서는 살살하고 가라는 KIA 프런트의 얘기에, 최형우는 주말 넥센과의 경기에서 9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클로저 왜 이렇게 힘이 없어?=나지안이 혼련이 끝나

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는 투수 송은범을 향해.

▲나 진짜 안 어울린다=김주찬이 머리에 밴드를 하고 있는 나지안을 보고.

▲타격훈련 때만 할게요=김주찬의 구박을 들은 나지안, 땀이 많이 나서 어쩔 수 없다며.

▲더울 땀 다 같이 더우니까=김종국 코치, 해대 시절 검빨 유니폼이 없긴 했지만 땀 보면 어차피 다 똑같이 더운 거라며.

▲처음 봤대요=28일 NC와의 경기에서 우측 담장 맞추는 타구를 때렸던 김주형, 사람들이 밀어치는 것 처음 봤다고 농담을 하더라며, 김주형은 주로 잡아 던져서 좌측으로 보내는 타구가 많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10승 상대는 트레이비스 우드

3일 오전 5시 5분  
시카고 컵스 원정



류현진

트레이비스 우드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류현진(26)이 내셔널리그의 가장 오래된 구장에서 시즌 10승 달성

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8월 3일 오전 5시 5분(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리는 시카고 컵스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주신수와 벌인 한국인 투·타 대결에서 지구 최고구속을 153km짜리 끌어올린 류현진은 왼손 타자 품쪽에 걸치는 예리한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낫차 큰 커브 등을 활용해 7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솜아내며 산발 2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고 승리를 안았다.

9승 3패, 평균자책점 3.14를 기록한 류현진은 컵스를 제물로 4연승과 함께 2년 만에 두자릿수 승리 복귀를 향해 힘을 낼 작정이다. 그는 2006년 프로야구 한화 입단 이래 6년 연속 두자릿수 승리를 거두다가 지난해 9승(9패)에 머물렀다.

류현진과 선발로 대결할 투수는 7승 7패, 평균자책점 2.79를 올린 왼손 트레이비스 우드다. 우드는 리그 중부지구 4위로 처진 컵스에서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다.

컵스 타선은 팀 타율과 출루율에서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나 팀 홈런(114개)과 장타율(0.405)에서 각각 3위, 4위를 달려 탁월한 한 방 능력을 보여준다.

남진 류현진은 9번째 원정 구장인 리글리필드에서 10승 이정표를 세울

한다. 주신수와 벌인 한국인 투·타 대결에서 지구 최고구속을 153km짜리 끌어올린 류현진은 왼손 타자 품쪽에 걸치는 예리한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낫차 큰 커브 등을 활용해 7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솜아내며 산발 2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고 승리를 안았다.

9승 3패, 평균자책점 3.14를 기록한 류현진은 컵스를 제물로 4연승과 함께 2년 만에 두자릿수 승리 복귀를 향해 힘을 낼 작정이다. 그는 2006년 프로야구 한화 입단 이래 6년 연속 두자릿수 승리를 거두다가 지난해 9승(9패)에 머물렀다.

류현진과 선발로 대결할 투수는 7승 7패, 평균자책점 2.79를 올린 왼손 트레이비스 우드다. 우드는 리그 중부지구 4위로 처진 컵스에서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다.

컵스 타선은 팀 타율과 출루율에서 리그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나 팀 홈런(114개)과 장타율(0.405)에서 각각 3위, 4위를 달려 탁월한 한 방 능력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 박인비 '캘린더 그랜드슬램' LPGA 새로운 역사 쓴다

내일 4번째 메이저 브리티시 오픈 출전



여자 프로골프 세계 랭킹 1위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시즌 4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대기록 달성을 노린다.

앞서 열린 올해 메이저대회 3개를 휩쓴 박인비가 브리티시 오픈마저 우승하면 남녀 프로골프 역사를 통틀어 사실상 사상 최초의 '캘린더 그랜드 슬램'(한 시즌에 메이저 대회에서 4승을 거두는 것)을 달성하게 된다. 올해 브리티시 오픈은 8월 1일부터 나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의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 올드코스(파72·6672야드)에서 열린다.

지금까지 남녀를 통틀어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이룬 선수는 1930년 보비 존스(미국)가 유일하다. 당시 존스는 US오픈, 브리티시 오픈, US 아마추어, 브리티시 아마추어 등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해 대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는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가 열리기 이전인데다 아마추어 대회가 2개나 포함돼 지금의 '캘린더 그랜드 슬램'과 같은 값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이 많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2000년 US오픈부터 2001년 마스터스까지 메이저 4연승을 기록하는 했으나 한 해에 열린 4개 메이저를 휩쓴 적은 없다.

결국 박인비가 이번 대회를 우승해 이번 시즌 메이저 4개 대회를 휩쓴다면 사실상 사상 최초의 '캘린더 그랜드 슬램'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는 의미다. 또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캘린더 그랜드 슬램'과 함께 자연스럽게 '커리어 그랜드 슬램'(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4개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것)도 이루게 된다.

박인비는 지난 1일 끝난 US여자오픈 우승 이후 다소 주춤했다. LPGA 투어 매뉴얼리프 파이낸셜 클래식 공동 14위, 마라톤 클래식 공동 3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마라톤 클래식을 마치고 지난 23일 한국에 돌려 28일 출국 전까지 5일간 총천의 시간을 가졌기에 이번 브리티시 오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한국 선수의 메이저 6연승이 이어질지도 관심이이다.

/연합뉴스

## 브라질 특급 루시오 완전한 광주맨 됐다

광주 FC, 임대 신분서 완전 영입

브라질 특급 루시오가 완전한 '광주맨'이 됐다. 광주 FC가 30일 임대신분의 루시오를 울산 현대로부터 완전 영입했다. 계약기간은 1년6개월이다.

'임대생'으로 광주 유니폼을 입은 루시오는 낮은 팀 합류에도 빠르게 팀에 적응하면서 제 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K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지런하게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환상의 왼발기를 과시하고 있다. 한국형 스트라이커에 걸맞은 활약으로 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14경기 5득점 4도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여범규 감독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천덕꾸러기 이미지를 벗고 팀을 위한 헌신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 관계자는 "루시오는 공격수임에도 팀이 위기에 처할 때면 미드필드 진영까지 내려와 동료들을 돕는 헌신적 플레이를 보여줬다"며 "K리그에서의 풍부한 경



루시오

험을 토대로 한 경기운용 능력도 좋아 완전 영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루시오는 새로운 용병 루이지뉴의 합류로 '브라질 듀오'를 구성, 광주의 최전방 투톱으로 후반기 골 사냥에 나서게 된다.

휴식기를 끝낸 광주의 연승도 전은 이번 주말 이뤄진다. 광주는 8월 4일 오후 7시 고양을 안방으로 불러 K리그 캘린더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